

마지막 날 프로그램 제대로 운영안돼

제2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 학생작품전시 · 문화예술단체 일반전시 전날 철거

고성지역 주민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2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당초 24일 오후 5시까지 문화예술행사로 고성교육청이 주관한 학생작품전시회와 10여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한 일반작품전시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사 이틀째인 23일 오후 6시경 대부분의 부스들이 철거해 24일에는 문화예술행사 가운데 고성문화회 시화전만 유일하게 진행됐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성문화제위원회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운영한 가족사랑의 날 행사가 열렸다. 전체 30여개의 부스 가운데 달랑 2개 부스만 문을 연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이 없는 토요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가야 했다. 특히 이날 인근에서 2011년 고성군수기(배) 종목별 체육대회가 열려 유동인구가 많았지만, 대부분의 부스가 텅 비어 아쉬움을 남겼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24일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윗놀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주변 부스들이 모두 철거해 너무 썰렁하고 흥이 나지



제2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마지막날인 지난달 24일 행사장에는 30여개의 부스 가운데 고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왼쪽)와 고성문화회 시화전 부스만 운영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않았다"며 "마침 놀토여서 가족 단위로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수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문화예술행사 부스들이 23일 오후 철거한 것과 관련 부스를 운

이 관계자는 또 "1차적인 잘못은 24일까지 부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에게 있지만, 성격이 다른 부스들이 뒤섞여 있어서 체험행사와 부대행사 부스가

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22일 오후 6시께 진행된 축등 시가행진 경우 읍면 참가자들이 나오지 않아 학생들이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바람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각종 문화예술 전시회를 행사장에서 짧은 기간만 열 것이 아니라, 행사 후에도 군청이나 문화원, 읍면사무소, 은행 등에서 일주일가량 전시해 행사장을 찾지 못한 주민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성문화제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고성문화원 박명재 사무국장은 "축등 시가행진 등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며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행사부터는 보다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호 기자

축등 시가행진 존폐 논란 ... 주민없이 학생들만 참가 체험 · 부대행사 부스와 문화예술행사 부스 구분 필요

영했던 단체의 관계자는 "같은 공간에 부스를 설치한 체험행사와 부대행사 부스들이 철거를 하자 문화예술 부스들도 덩달아 철거를 했다"며 "고성문화회 시화전을 제외한 모든 문화예술 부스들이 순식간에 철거를 했다"고 전했다.

철거를 하자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보기 흉하고 주위가 썰렁해진 것도 원인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행사부터는 모든 부스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철거하거나, 아니면 문화예술 부스들만 그룹을 지어 설치하고 마지막 날까지 운영할 수 있

에 100여m 행렬에 그쳐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행사부터는 축등 시가행진을 폐지하거나, 식전 행사로 진행되는 가장행렬에는 읍면 주민들이 참가하고 축등 시가행진은 사회단체나 부스 참여



송림과 해당화가 어우러진 철새도래지 화포리 갈대밭에서 듣는 가을동화의 사랑이야기

화포리펜션은 가족단위의 휴식처는 물론 방문하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좋은 곳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봄이면 신비한 들꽃과 함께할 수 있고 여름이면 집 주위의 울창한 산림과 계곡물로 더위를 식히고 가을이면 하늘 풍경에서 딸 수 있는 밤이 주렁주렁 눈 내리는 겨울이면 눈꽃이 연출한 절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화포리펜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132번지
www.hwapori.co.kr ☎033-682-1223, 010-6309-0003